

누구보다 호남 사랑한다던 홍준표, 대표 되더니...

호남인 모욕주는 '말 뒤집기'



홍준표 대표 호남 관련 발언

- 2010. 7. 14 전당대회 앞둔 광주기자간담회
“내 각시가 전라도 여자다. 당 대표가 되면 정말로 호남에서도 인정받는 대표가 되겠다”
- 2011. 6. 27 광주DJ센터 전당대회 비전발표회
“광주 우산동에 91년 3월부터 7월까지 살았다. 제가 강력부 검사시절 있었던 일들이 그 당시 나왔던 모래시계 드라마”
- 2011. 7. 27 최고위원회 회의
“총선에서 의석이 나올 수 있는 충청권을 배려하겠다. 호남 배려는 차기 지도부에서 하면 된다.”

가를 보내고 내달 8일 이후 인선안을 재논의할 것이라고 김기현 대변인이 전했다.

최고위원회의 직후 원 최고위원은 기자들을 만나 “호남대책위원장 추가 임명안에 대해 ‘호남을 더 자극하게 될 것’이라며 전원이 반대했다”며 “인선을 강행한다면 지도력에 심각한 손상이 있을 것이라고 최고위원들이 경고했다”고 밝혔다.

“누구보다 호남을 사랑하고 잘 안다”고 자랑해온 홍 대표가 이처럼 무리수를 둔 것은 내년 총·대선을 위해 최근에 한나라당 약세지역으로 돌아선 충청권에 ‘올인’하는 반면 호남을 포기하는 선거 구도를 그리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홍 대표는 7·4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6월2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전발표회에서 “광주 북구 우산동에 91년 3월부터 그해 7월까지 살았다. 당시 제가 강력부 검사시절 있었던 일들이 그 당시 나왔던 모래시계 드라마”라며 광주와 인연을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2010년 7·14 전당대회를 앞두고 광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내 각시가 전라도(부안) 여자다. 아무리 생각해보아 이번엔 내가 당 대표가 되면 정말로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에서도 인정받는 대표가 돼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한나라당 대표는 어느 지역의 대표가 아니지 않나. 국민의 40~45% 지지받는 정당의 대표라는 것은 전국적인 당대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처럼 호남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호남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했지만 전당대회 전부터 ‘호남 포기 및 충청 올인’ 전략을 구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가 이날 ‘가능성 있는 충청을 배려해야 한다’고 한 것은 지난 5월26일 대구의 한 강연에서 “사실상 경남은 민주당에 빼앗겼고 강원도까지 넘어갔으며 충청권 역시 호남화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총선 패배가 확실시된다”는 발언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비록 짝사랑이 될지 모르지만 마음속 부채의식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애는 계속될 것이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겠지만 배가 부르게 될 때까지 광주시민들의 사랑을 갈구할 것이다”라는 지난 2008년 광주시청을 방문한 당시 박희태 대표의 발언을 상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두 명의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에서 호남권 인사를 배제하고 충청권 인사로 채우려 한 것은 ‘호남 포기’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홍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충청 출신인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 정우택 전 충북지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하려 했다.

그는 약세인 충청과 호남에 각각 한 명씩 배려하든 관례를 깰 때

“총선에서 의석이 나올 수 있는 충청권을 배려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표는 대신 호남대책위원장을 별도로 뒤 최고위에 참석시키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다른 최고위원들은 “호남을 무시하는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표와 원희룡 최고위원 사이에는 고성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가 거세자 홍 대표는 추후 논의하겠다고 하며 한발 물러섰다. 홍 대표는 휴

정부 내수 활성화 후속조치 뭘 담았나

광주 공공기관 구내식당도 휴무제 시행 음식점 매출 확대... 전통시장도 中企대우

여수항 크루즈 부두 연말까지 확충

정부가 27일 확정된 내수활성화 후속조치 계획은 ‘징검다리 연휴’ 연가 사용, 중소기업의 방산물자 공급 참여 확대 등 66개 과제를 망라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열린 ‘내수활성화’를 위한 국정 토론회에 제기된 정책 과제 가운데 108개를 추려 우선 30개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했으며 나머지 과제 가운데 66개의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대체휴일제, 봄·가을 방학 신설 등은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으나 공무원의 ‘징검다리 연휴’에 연가사용을 제도적으로 강권하고 시차출근제와 정시 퇴근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사회적기업도 中企대우 = 정부는 현재 과천 정부청사에서 시행하는 구내식당 휴무제를 광주와 대전·제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해 지역 음식점 매출 확대를 꾀하기로 했다.

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수항과 제주의 크루즈 부두를 연말까지 확충하고 인천항은 부두 건설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공기업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4대강 수변 공간에 벤치와 그늘막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16개 보를 중심으로 9월부터 설치하기로 했다.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대응해 ‘토요 스포츠데이’나 ‘토요문화학교’ 등 체육,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 가족단위 여행 증가에 대비해 국민여가캠핑장을 올해 37곳에서 5년 뒤에는 80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저소득층 관광과 관련해 지역단위 생태관광 바우처와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관광버스 개조에 지원하기로 했다.

◇中企 먹을거리 늘린다-방산물자 문화 개방=정부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해 중소기업에 돌아갈 ‘파이’를 키우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방산물자 지정제도를 개선해 방산 분야의 문호를 중소기업에도 개방했다. 군사전략상 중요한 물자를 ‘안보 전략물자’로,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물자는 ‘일반 방산물자’로 이원화해 일반 방산물자에 대해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

정부물품 구매 적격심사 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납품실적이 50~70%만 있어도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해 5점 만점을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납품실적 평가를 대·중소기업보다 우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할 대책도 마련했다. 대학이 중소기업이 요청하는 학과를 신설해 인력을 육성·공급하는 ‘중소기업계약학과’ 규모를 현 500명에서 내년에 1000명으로 감절로 늘린다. /연철뉴스



왕복항공으로 떠나는 2011 여름방학 제주도 바캉스 상품 특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가 인증한 우수여행상품

왕복항공 2명이상 출발가능!! 다른 일정, 다른 날짜 출발가능

와~ 여름방학이다! 가깝고 아름다운 제주도로 떠나볼까~요!

관광도 하고 해수욕도 즐기는 바캉스 - 최고의 일석이조 여행 가족모두와 함께 할수 있는 새롭고 알찬 일정의 대박여행

알뜰특가 패키지 해수욕+관광열차+新제주관광명소 탐방 2박 3일
성인 ₩289,000원~ 아동 ₩249,000원~

윤택공 패키지 마라도잠수함+우도유람선 투어+新제주관광명소 탐방 2박 3일
성인 ₩339,000원~ 아동 ₩299,000원~

해수욕장 자유이용권 1인 10,000원권 증정!!

• 공통불포함사항 : 기사/가이드팁, 선택관광, 준비물(신분증, 세면도구) • 공통포함사항 : 광주→제주 왕복항공, 숙박, 식사(관공/특급 호텔은 식식 불포함), 일정에 관광요금, 여행자보험, ★전상품 유가할증료 포함 ※ 우도, 마라도 잠수함 사전예약 가능

★ 이호태우 해수욕장 자유시간 - 세계자연유산 한라산(약수시음) - ★ 휴메리자연생태공원 - 국제평화센터 - ★ 꽃지생태소 및 물레길 체험 - ★ 코끼리소 - 평화박물관(일본군 지하요새) - ★ 제주에코랜드 생태공원 관광열차 체험 - ★ 조랑말체험 또는 트릭아트 - ★ 휘닉스아일랜드 해양공원

(주)부민가자투어 예약센터 광주 Tel.(062)382-8201 제주 (064)748-3131